

〈발표3〉

대인기피증을 경험하고 있는 성인자녀에 대한 가족치료사례

박태영(숭실대)

박신순(숭실대)

1. 서론

본 사례는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성인자녀가 그 동생에 의해 의뢰된 사례로서 피의뢰인은 대인기피증 외에도 잦은 이직경력과 가족 내에서의 신뢰 상실, 신용불량 문제, 감정조절 문제 등으로 인해 장남이면서도 가족에게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였다. 상담을 통해 치료자는 가족성원들에게 장남의 문제가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혼동된 가족체계, 어머니와 장남의 밀착관계, 그리고 가족의 혼동된 위계질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가족 치료를 통하여 가족 전체가 기능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왔다. 본 연구는 '대인기피증을 가진 성인자녀의 가족은 가족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과정을 경험하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료에 의뢰된 성인자녀의 대인기피증의 원인이 무엇이며, 장남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치료적 개입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족치료를 통해 변화된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 치료의 이론적 근거들

본 사례에서 치료자는 가족이 문제를 둘러싸고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MRI의 의사소통이론과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Salvador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 등을 절충적으로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주제는 '대인기피증을 가진 성인자녀의 가족은 가족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과정을 경험하였는가'이며 그 구체적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큰아들의 대인기피증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큰아들과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족치료적 개입기법은 무엇인가?

셋째, 가족치료를 통해 큰아들과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모습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대인기피증을 가진 큰아들(S1, 35세)과 작은아들(S2, 34세), 그리고 아버지(F, 65세)와 어머니(M, 61세)이다. 상담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이며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질적자료분석방법 중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상담 과정을 녹음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작성한 축어록과 상담 중 치료자가 기록한 메모를 함께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원자료를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가족치료 개입과정에 관련된 주요개념들을 확인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작업을 하였으며, 다시 범주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축코딩(axial coding)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한 이야기줄거리를 만들어 내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하였다.

4) 연구의 엄밀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엄밀성을 위해 삼각화(Patton, 2002)를 이루고자, 먼저 축어록과 상담중의 메모를 원자료로 함께 활용하는 자료의 삼각화를 피하였으며, 치료를 위해 MRI 의사소통이론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삼각화를 이루었다. 치료자의 상담기록을 분석자가 분석한 후 다시 두 연구자가 분석에 대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삼각화를 통해 각 연구자의 편견에 따른 반영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먼저 내담자의 동의 하에 상담을 녹음하였고, 이를 다시 연구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연구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서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이름을 문자로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개방코딩

본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 191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그에 따른 7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표 1>로 나타내었다.

<표 1> 개방코딩에서 분석된 개념과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사람 대하기가 싫음, 싫은 사람이 있음, 사람 대치하는 방법을 모름,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음.	대인기피증	큰아들이 현재 가진 문제증상들
쉽게 포기, 정착하지 못함, 이직이 반복됨.	잡은 이직	
스트레스 푸는 방법, 매일 마실,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잠.	알코올 중독	
무절제한 경제생활, 신용불량자가 됨.	무절제한 경제생활	
정이 많음, 이혼녀와 사귀. 여자에게 빠짐, 여자에게 집중, 술집여자와 사귀.	불안정한 연애	
공황상태, 집중할 수 없음, 혼란스러움, 자포자기, 절망적, 자살충동, 부수고 싶음, 미칠 것 같음, 감정기복이 심함.	불안정한 정서상태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p>*아버지의 관점-열등의식, 학업부진, 소외, 미움받음. 약 때문, 우울증, 결혼하면 나아질 것임.</p> <p>*어머니의 관점-임신때 불안 때문, 결혼으로 변할 것임.</p> <p>*작은아들의 관점-게으름, 극복하면 될 일, 어머니 기도부족.</p> <p>*큰아들 자신의 관점-베이스의 안정이 필요, 무기력, 사회적 부적응, 심리적 고통, 치료의 필요성 느낌.</p>	큰아들의 문제에 대한 가족의 관점	큰아들을 가족치료에 의뢰하기
큰아들이 치료에 대한 욕구를 동생에게 호소, 동생의 이해, 형 치료에 대해 동생이 부모님 설득하기, 치료에 합의하기.	치료의뢰에 가족이 합의하기	
<p>*부부간의 대화방식-부부간 대화가 없음, 형식적인 내용만의 대화,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는 남편.</p> <p>*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방식-일장 연설하는 아버지,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아버지, 나를 모르는 아버지, 아버지와 큰아들간 거의 대화가 없음, 술을 먹어야 대화함, 사무적인 내용의 대화만 함. 잘못된 것만 지적, 고리타분하고 도덕적인 이야기, 나를 이해 못하는 이야기만 하시는 아버지, 내 생각을 물어보지 않음, 일방적으로 나무라심</p> <p>*어머니와 큰아들의 대화방식-스트레스 주는 일만 어머니에게 말함, 나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어머니, 큰아들 아버지 사이의 의사통로가 되는 어머니, 아버지와 간접적 대화하기</p> <p>*형제간의 대화방식-형제간 공통점이 없음, 냉정함, 수용해주지 않음.</p>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싸움, 술문제와 늦은 귀가 문제로 주로 싸움, 부인을 무시하는 아버지, 부인을 돌대가리라고 함.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	큰아들의 문제에 기여한 요인들
편애하는 아버지, 두아들을 비교하기. 둘째 아들은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아버지, 편들어주지 않는 부모, 칭찬하지 않는 아버지, 부모의 대립된 양육 태도, 큰아들 교육에 아내 탓을 하는 아버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아버지, 아들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역기능적인 양육방식	
머리 좋은 것으로 편가르기-머리 좋은 아버지와 작은아들, 머리 나쁜 어머니와 큰아들, 혈액형으로 편가르기-AB형인 아버지와 작은 아들. 형을 존중 안함, 아버지의 편애를 즐김, 연년생, 능력없는 형, 형의 권위를 인정안함, 형을 무시함, 형에게 '니'라고 함, 형을 야단침, 형제위계질서가 파괴됨.	경계가 혼동된 가족체계	
자식을 끄적이 위하는 어머니, 자식에게 지나친 어머니, 간섭이 심한 어머니,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한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의 밀착관계, 큰아들 얘기를 들어줌, 편들어주는 어머니, 큰아들의 속상한 일을 듣고 잠 못자는 어머니.	미분화된 모와 틈아들	
싫증을 잘내는 가족력, 한 일을 오래 못하는 가족력, 타협하지 않는 방식이 전수, 아버지와 큰아들의 알코올 중독 증상.	다세대 전수되는 역기능적인 생활패턴	
자신감 없는 큰아들, 신뢰하지 않은 아버지, 실망만 시키는 큰아들, 자신감 없는 큰아들.	자신감 결여	큰아들의 현재 자아 상태
절망감, 회피하고 싶음, 포기, 무기력한 나, 판단력 결여, 추진력 없음, 내성적, 상처를 많이 받을, 잘 어울리지 못함, 그러려니 함.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결정을 하지 못하는 큰아들,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큰아들, 자기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성	
스트레스 대처방식-동생에게 전화해서 푸념, 여자를 만남, 술을 마심, 도망가고 싶음.	역기능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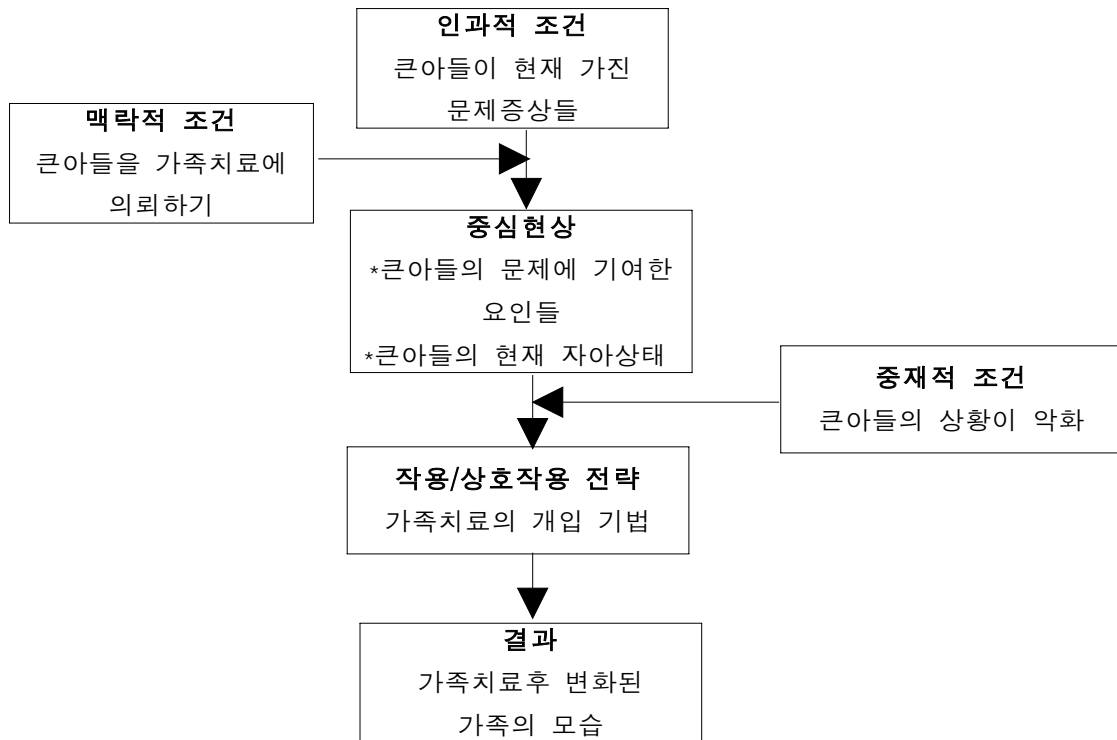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매장 상황이 악화, 부족했던 사업준비	사업이 악화됨	상담과정중 큰아들의 상황이 악화
사귀던 여자가 자식이 있는 이혼녀임을 고백. 경제적 위기가 의사소통 효과발휘를 저하시킴.	여자문제가 악화됨 상담효과에 영향을 줌	
문제의 핵심 명확히 하기, 치료의 방향 제시하기, 치료에 대한 확신주기	희망주기	가족치료의 개입기 법
경청해주기,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돕기. 의견표출을 도와주기, 편들어주기, 공감하기, 인정해주기, 아들 입장을 이해시키기.	지지하기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문제, 역기능적인 아버지의 말투,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닌 가정환경이 문제,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이 밀착 관계 형성, 아들의 독립에 저해요인, 서로 다른 부모의 가족문화가 문제, 부모의 대화방식이 문제, 아들간 비교와 편애가 문제,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려는 방식이 역효과적임을 인식, 가족간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큰아들 문제의 핵심 원인, 대화상대가 없는 큰아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큰아들, 사면초가인 큰아들.	문제의 초점을 명확화하기	
개방적인 표현방식으로 바꾸기, 자기표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에게 경청하는 의사소통방식 사용하기, 형제간 위계질서 세우기, 큰아들의 권위를 부모가 심어주기, 동생이 형을 지지해주기, 형제하위체계를 강화하기-동생이 형을 지원하기, 아버지의 엄격한 삶의 기준을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기, 융통성 있는 대화하기,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기능적인 대화하기,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 자기주장하기,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기, 자기의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간접대화방식 사용하지 말기, 가족에게 의존하여 결정을 미루지 말기, 자기를 우선 보호하기,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 스트레스를 대화로 풀기, 가족 안에서 대화상대를 찾기.	해결책 제시하기	가족치료후 변화된 가족의 모습
의도적으로 변화하기, 노력하기, 양보하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족	
일방적 강요를 하지 않음, 술을 먹지 않은 상태로 대화함, 상대방의 대화방식에 맞춰줌.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가족	
마음을 열어줌, 인정하고 수용해줌	수용하고 인정하는 가족	
큰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줌, 아들을 이해해줌.	경청하고 이해하는 가족	
자신의 방식을 참음, 양보하고 타협함.	타협하는 가족	
자기주장하기, 대안을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남의 탓하지 않기. 목소리 낮추기, 내가 주체가 되기,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독립하기, 자신감이 생김.	주체적으로 변한 큰아들	

2) 축코딩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해서 분석한 축코딩 결과를 <그림 1>에서 나타내었다.

(1)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조건으로 '큰아들이 현재 가진 문제증상들'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그 하위범주로 '대인기피증,' '잡은 이직,' '알코올 중독,' '무절제한 경제생활,' '불안정한 연애,'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상태' 등이 도출되었다.



<그림 1> 가족치료 변화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으로는 ‘큰아들을 가족치료에 의뢰하기’가 상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큰아들의 문제에 대한 가족의 관점’과 ‘치료의뢰에 가족이 합의하기’가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3) 중심현상

본 연구의 중심현상에는 두가지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상위범주는 ‘큰아들의 문제에 기여한 요인들’로서 그 하위범주는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 ‘역기능적인 양육방식,’ ‘경계가 혼탁한 가족체계,’ ‘미분화된 모와 큰아들,’ ‘다세대 전수되는 역기능적인 생활패턴’ 등이 분석되었다. 두 번째 상위범주는 ‘큰아들의 현재 자아 상태’가 도출되었으며 그 하위범주로는 ‘자신감 결여,’ ‘낮은 자아존중감,’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성,’ ‘역기능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도출되었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으로는 ‘상담과정 중 큰아들의 상황이 악화됨’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하위범주로는 ‘사업이 악화됨’과 ‘여자문제가 악화됨’ 그리고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줌’ 등이 도출되었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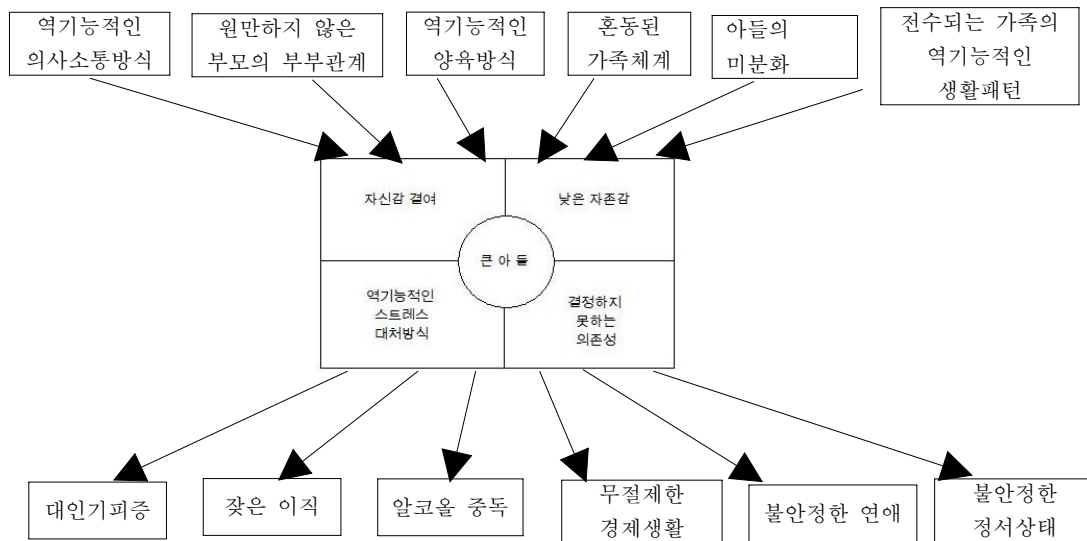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으로는 ‘가족치료의 개입 기법’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하위범주로는 ‘회담주기,’ ‘지지하기,’ ‘문제의 초점을 명확화하기,’ ‘해결책 제시하기’ 등이 도출되었다.

(6) 결과

본 연구의 결과로는 '가족치료 후의 가족의 변화된 모습'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족,'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가족,' '수용하고 인정하는 가족,' '경청하고 이해하는 가족,' '타협하는 가족,' 또한 '주체적으로 변한 큰아들' 등이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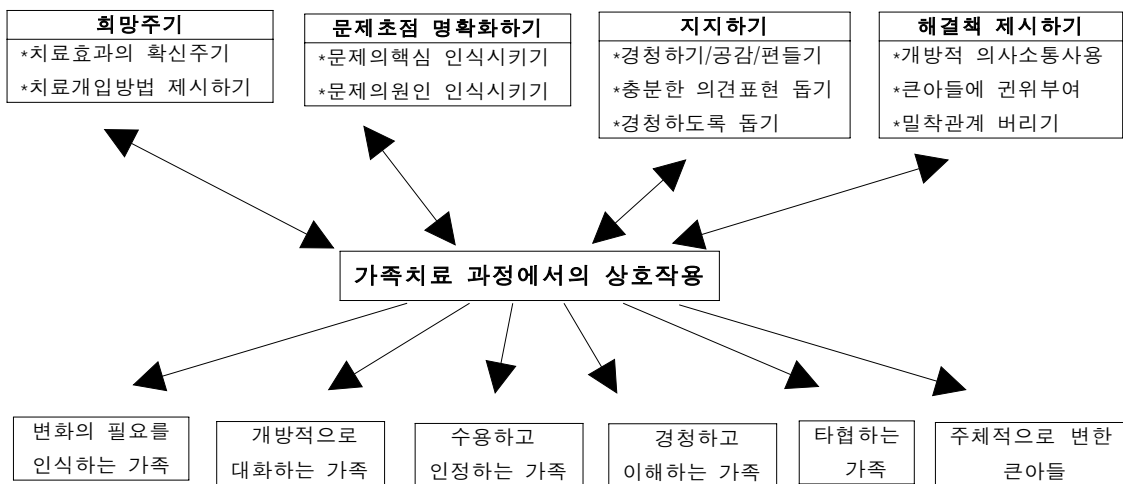
본 연구는 대인기피증을 가진 성인자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에 대해서, '대인기피증을 가진 성인자녀의 가족은 가족치료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큰아들의 대인기피증 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원만하지 않은 부모의 부부관계, 역기능적인 양육방식, 혼동된 가족체계, 아들의 미분화 그리고 다세대 전수되는 역기능적인 생활패턴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이 큰아들에게 있어 외면적으로는 대인기피증을 중심으로 잦은 이직, 알코올 중독, 무절제한 경제생활, 불안정한 연애, 불안정한 정서상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본질적으로는 큰아들의 자신감 결여, 낮은 자존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성, 역기능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2>로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 큰아들의 대인기피증 문제의 원인

치료자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개입 기법으로 먼저 가족에게 가족치료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인식시키면서, 상담과정 중에 경청과 공감, 편들기 등의 지지적 기법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개입기법을 사용하여 가족이 변화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은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대화방식이 점차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변하였고,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의견이 상충될 때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큰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충

분히 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남의 탓을 하며 회피하는 방식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회복한 큰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될 것을 결심하면서, 오래 전부터 가져온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족들에게 역설하였고 가족들은 이 뜻을 인정하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을 변화시킨 가족치료 개입 요인들과 변화된 가족과 장남의 모습을 <그림 2>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 가족치료 개입과 그에 따른 가족의 변화모습

본 연구를 통해 많은 가족의 문제가 가족 간 의사소통의 역기능적인 방식과 가족체계의 혼란 등이 그 주요 원인이 됨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치료자가 가족들이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대화방식을 사용할 것과 기능적인 가족 하위체계를 형성하도록 개입함으로써 내담자의 문제가 감소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Lewis, J. A. 1992. Treating the Alcohol-Affected Family. In L L'Aabate, J. E. Farrar and D. A. Serritella (eds.), *Handbook of Differential Treatments for Addiction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ed). Thousand Oaks, CA: Sage.

Strauss, A. and Corbin, J. 2001.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Watzlawick P., Weakland J., and Fisch R. 1974. *Change: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Weakland J., Fisch R., Watzlawick P., and Bodin A. M. 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pp. 141-168.